창 2:7-9 창세기에서 가장 알려진, 그러나 가장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수많은 이단종파 교리가 선악과를 억지로 풀다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몰몬교가 선악과를 성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걸 풀려고 억측(speculation)하다, 그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실 것 같음 아예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서 왠 난리냐!" "데체 그깐 열매 따 먹었다고 참 치사하다. 그런 하나님 까다롭고 참 고약한 분 아니냐?" 그런 불평과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는 에덴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 스토리에서 수 많은 질문이 생기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 2:7-9 함께 읽겠습니다.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기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만든 분 의도를 알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또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지가 스스로 분명해 집니다. 요일 4:8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인격적인 상대라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창 1:1-2:3 까지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2:4 부터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약속을 주고 받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당신이 친히 흙으로 빚어 코에 생령을 불어넣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특별히 친히 빚으신 의도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한국에서 급히 선물 살 일이 있어, 백화점 문 열때 갔습니다. 직원들이 문 앞에 나와 90 도 각도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사랑합니다." 모르고 갔다 황당한 경험한 뒤로는, 절대 그 시간에 안 갔습니다. 관계가 있고, 스스로 우러난 사랑이라야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기계적으로나 억지로 표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멋진 직원이 사랑한단 말 곧이곧대로 듣고 착각했다간 정신이상자 취급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사람을 무조건 순종케 안 만드셨습니다. 무조건 순종케 사람을 만드셨더라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인형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지라,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사람에게는 전적인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께도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17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어, 그걸 먹는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되거나, 선악을 알게 했을 거란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 그 나무가 있었지만 그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순종할지 말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별하는 상징으로 쓰였단 견해입니다. 어떤 경우든 순종은 생명으로 갚으시고, 불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해서

친히 지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첫 사람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엔 가설이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은 "보시기에 매우 좋은" 완전한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게 선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악이 들어와, 선과 악 모두를 경험하고, 그 차이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장차 사람이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게 될 것도 아셨을 걸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담 하나님이 차라리 선악과 만들지 마시든지, 아님 선악과 못 따먹게 '동산 중앙'이 아니라, 저 구석 안 보이는 데 꼭꼭 감춰 두시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않나? 마치 함정 파놓고 거기 빠지기 기다린 게 아닌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창 2-3 장에 나옵니다. 거기 하와를 유혹한 뱀 스토리가 나옵니다. 현대 문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뱀이 간교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과 말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선악과 스토리를 고대 신화 취급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화로 믿으십니까?

신화라고 믿는 분은, 다음 질문들에 답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갓난 아이가 innocent 하다고요? 연년생 낳은 갓난 애들 엄마 안 보는데, 절대 함께 두면 안되는 것 아시죠? innocent 하단 애들이 어디서 질투와 해꼿이를 배웠습니까? 교육 받으니 부정부패가 사라집니까? White color crime 이 더 교활한 거 아시죠? 롬 5:17 은 그 원인을 첫 사람이 타락한 결과라고 밝힙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부패가

실제라면 그 원인이 된 첫 인간 타락도 실제여야 하고, 그 실제 속에 등장한 선악과도, 뱀의 유혹도 당연히 실제였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흐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흐르는 걸 같은 원리로 롬 5:18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의가 실제로 흐릅니다. 이런 바울 신학을 전개하려면, 뱀이나 선악과 스토리가 실제 있었다 전제할 때 가능합니다. Jesus Seminar 처럼 '역사적 사건' 연구한다고, 성경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하면 모든 신학이 무너집니다. 민 22:28 발람 선지자가 천사를 못 보고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뱀이 사람을 유혹해 말한 일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선악과가 복숭아였단 말에 속아, 한동안 그런줄 알았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준 복숭아 받아 먹다 하나님이 부르는 바람에 씨가 목에 걸려 남자는 성대뼈가 생겼다고 증거까지 보여줘서 속았습니다. 성경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고"만 하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3:5 했고, 따먹고는 3:7 절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담 선악과 속에 눈을 밝히는 어떤 특별한 물질이 들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 말은 뱀의 말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합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가 존재론적으로 선하단 뜻이지, 도덕적 영적 의미에서 선하단 뜻은 아닙니다. 존재론적 의미의 선악, 도덕적 영적 의미의 선악은 분명 다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 알게 된 선과 악은, 도덕적 영적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악과 속에 도덕적, 영적 의미의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효능이 들었다고 무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집니다.

열매에 영원히 살게 할 효능이 들어서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은 어떤 열매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영생의 언약을 상징한 열매입니다. 그래 그 나무를 생명나무라 불렸던 겁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 속에 어떤 신기한 효능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덕적 영적 의미의 선과 악을 알게 될 걸 상징한 열매라 선악과라 부른 겁니다.

선악과는 그걸 먹고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 그 행위가 바로 악이고, 먹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게 선이란 걸 확인시켜 주는 열매, 또는 장차 사람에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게 해 줄 역할을 할 열매라 선악과인 겁니다. 따라서 선악과 속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들었는지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은 그 명령에 인격적으로 순종할 존재란 사실을 밝히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형상, 즉 인격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17 절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먹지 않으면 살리라'는 뜻이 논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산다'는 건 육체적 생명이 아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생명, 즉 영생을 주신단 뜻입니다. 아담이 명령 받을 때도, 이미 육체적 생명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선악과는 사람이 빠지게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거나, 반역을 예상 못한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 영광돌릴 창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한 선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뜻과는 달리, 그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선을 위한 도구로 선악과를 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걸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18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둘을 서로 대비합니다, 동일한 한 십자가가, 그걸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정반대 결과를 냅니다. 선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섭리로 선악과를 이해하면, 하나님 능력을 찬송케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 생각으로 오해하면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선악과는 단지 거추장스럽고 미련한 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화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첫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어기면 죽이겠다 말씀하신 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분께 자기 전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선악과는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계 2:7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를 '이기는 자'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선악과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대담하게 어긴 첫 사람 모습 속에는, 창조주를 살해한 피조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명령 거역한 건 명령 받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자리 올라가겠단 것 아닙니까? 능력만 되었더라면 명령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해했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실제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잘라, 그리스도가 질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함께 들었습니다. 선악과 따 먹은 지울 수 없는 주홍빛 같은 내 죄가 들었습니다. 또 십자가 안에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내 죄를 말갛게 씻으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받은 자로 사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받고도 이렇게 흔들리는 그걸 애통하는 자입니다. 상황에 연연 않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상황 이겨낼 믿음 달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날 괴롭히는 저 원수 속히 없애달라 기도 않고, '원수의 핍박 잘 감당케 해달라. 또 저 원수도 어서 예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 그게 에덴 한 가운데 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뤄진 십자가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기도)